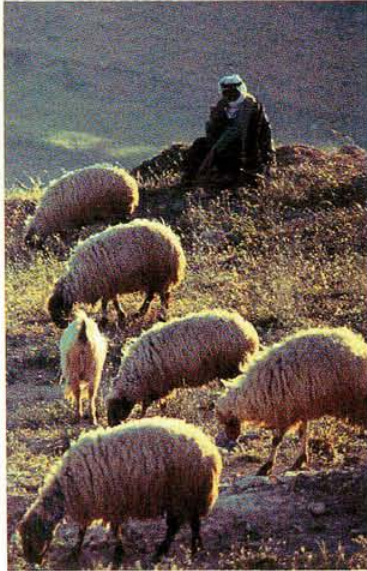




1991 2  
성도의 빛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유목민들이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 떼처럼 자유 분방하게 유랑하며 사는 곳.” 11쪽 “이 성지에서,” 참조. 앞 표지와 뒷표지의 베들레헴과 요단강 사진은 플로이드 홀드만의 작품이며, 다볼산은 돈 오 소프의 작품이고, 동산의 무덤은 라마 시 베레트 작품임.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탐내지 말라”	2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9
그 잡지가 저를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케네스 에스 로저슨 .....	10
이 성지에서 러셀 엠 벨슨 장로 .....	25
설교단에 선 적군 병사 더블류 허버트 클로퍼 .....	46
신비롭고 달콤한 것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	48
다른 자매가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닐라 더블류 쥬드 .....	

## 청소년란

질의 응답: 교회에 대한 공격에 응답함 .....	20
착한 일을 찾아서 함 글렌 요르겐슨 .....	24
샤르트르의 탑 리차드 엠 롬니 .....	34
너무 비싼 대가란 없다 스티븐 케이 크리스찬슨 .....	42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가족 지침서: 온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	28
방문 교육 메시지: 새로 부름 받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인사 말씀 .....	40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개인적인 책임	
더블류 유진 핸슨 장로 .....	65
교회 및 지역 소식 .....	66

## 어린이란

우리들의 친구: 하이다 피더슨 로런스 커민스 .....	50
성신이 우리를 돕는 방법 제임즈 이 파우스트 .....	53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심 로럴 롤핑 .....	54
빈 의자가 없습니다 리사 달그런 .....	56
심심 풀이: 장애물 돌아 가기,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 재닛 피터슨 .....	60
물몬경 이야기: 주님이 아랫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 .....	61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제간-아이슬란드어.

대판장단 : 에즈라테프트 벤슨, 고든 비 핑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터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 제299권, 제28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1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2 320  
Printed in Korea 2/91

# 애독자 편지

## 군대에서 읽는 성도의 벗

푸른 제복을 입고 군에 입대한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힘든 훈련과 고된 작업,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제가 말일성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어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찾아든 기쁜 소식의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다음아닌 성도의 벗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생활하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그때까지 참아낼 인내력을 주는 성도의 벗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어머니의 고마우심을 항상 새롭게 합니다. 군대간 아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성도의 벗을 신청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은 군복무중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훌륭한 말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성도의 벗을 선물해주신다면, 그들도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께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축복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문경과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서 받는 대판장단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됨을 간증드리며 눈덮힌 강원도 산골짜에서 선교 사업의 소망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키우는 저의 사랑을 성도의 벗을 읽는 모든 분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을 전합니다. -아멘-

정연일 형제  
청주 스테이크  
삼성 와드

## 뜻 깊은 기사

1990년 4월호에 실린 "미안해요, 베르다"는 저에게 매우 뜻 깊은 기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생 동안 베르다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도시에 사는 제가 참석하던 와드의 청소년들중에는 "배타적인" 그룹이 많았으며 저는 그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파티나 다른 활동에 초대 받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는 내내 외톨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젊은 청년이지만 저의 성격은 여전히 수줍어 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상처받기 쉬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저는 위의 기사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활동에 참가시킬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나 살펴보십시오.

## 익명의 독자

##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됨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복음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잡지는 또 제가 스테이크 선교사, 스테이크 선교부 서기, 그리고 장로 정원회 교사로서 교회에서 부름받아 봉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헤라르도 가르시아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 “탐내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덫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난 더 많이 가져야 해.”라고 말하는 교활하며, 재난을 이끌고 오는 악의 영향력입니다.

주님은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시면서 열 번 페이지 마지막 계명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 : 17)

그 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간의 본성만은 그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어디를 가나 젊었을 때 부자가 되어 고급스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값비싼 옷을 입고, 도시에 아파트를 갖고, 가능하면 교외에 집을 한 채 갖고자 하거나 그 이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주요 목표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수단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킵니다.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랐던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를 얻고 가정이 굳게 결속될 수 있으며,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소유를 탐하며,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이기심과 탐욕이 이들의 마음을 독차지합니다.

저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간 신문을 읽다보면 이기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 때는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매우 호화스런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맥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지성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영리함이 스스로를 실패로 끌어 내린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 중에 마지막 부분을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차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최근 몇 해 동안, 신문에는 능력있는 남성이나 여성들이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꼬리를 몰고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안락한 생활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투자를 계속 늘려갔으며, 이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그들을 부추겼던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하여 마치 개가 자기 꼬리를 쫓아 뱅글뱅글 돌듯이 투자의 여세를 계속 몰아가다 어느 날 결국은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이나 투자가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곤 산산이 부서진 꿈 밖엔 없습니다. 절친하고 유쾌했던 관계가 폭언과 비열함과 형사 소추를 하는 관계로 변하여 결국에는 서로가 법정에서 만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많은 서신들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겼도다.”(디모데전서 6:10) 이 훌륭한 경고가 참

진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는 돈을 강렬히 사랑하여 부를 이루었던 앞서 말한 사람들 중에도 이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사는 날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특히 결혼 적령기에 이른 모든 젊은 남성이 자신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충분한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가 어떻든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더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낼 때입니다. 이로 인한 불행은 아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우리는 누구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한 여름에는 어느 정도 안락하게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악이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처럼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선한 소망이 돌변하여 우리를 파멸시키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웃이 걸친 의복과 보석을 탐내지 말찌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유행의 노예가 되고야 마는 경우입니다. 유행은 인간을 홀리는 괴물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마저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비슷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웃의 차를 탐내지 말찌니라. 현대의 자동차는 훌륭한 기계 장치이며, 어떤 사회에서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싼 차를 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이 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빛을 지게 되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그 빛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저의



우리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이 탐욕이 되어 사악하고 고통스런 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31년에 주님이 오하이오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다음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라.”(교성 68 : 31)

여러분께 검소와 근면의 미덕을 쌓아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국민의 근면과 절약 정신이며, 한 가정을 자활시키는 것도 근면과 절약 정신입니다. 빛이란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지기란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갚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만 하며 이 보상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빛으로 인해 파산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불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단순한 과정들이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1938년에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께서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회당에서 이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자는 잠을 자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지도 않으며, 병원에 가는 일도 없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는 일도 없으며, 어디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지도 않으며, 놀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일을 중단하지도, 그 일을 그만두지도 않고,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수확이 줄어드는 법도, 한해를 타는 일도 없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의복을 입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짐이 필요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일도 없고, 칠을 하거나 깨끗하게 닦는 일도 없으며, 부인도 자녀도 부모, 친척, 친구도 없습니다. 생활비가 들지도 않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상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동정도 없으며, 화강암 절벽처럼 단단하고 물인정합니다. 일단 부채를 얻게 되면 이자는 여러분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 그로부터 해방되거나 도망하거나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자는 여러분에게 애원도 명령도 주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를

방해하거나 앞길을 가로 막거나 또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여러분을 파멸시켜 버립니다.”(대회 보고, 1938년 4월, 103 쪽)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을 적어 놓고 우리가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지불하게 될 댓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끔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1829년 마틴 해리스는 물문경 첫 판을 인쇄하기 위해 금전적인 채무를 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일년 후에 그에게 내린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업자에게 진 빚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교리와 성약 19 : 35)

그러나 어떤 상황하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돈을 빌리거든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어느 정도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빚은 즉시 갚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분별있는 부채는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결정하여 지불능력 이상으로 빚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족에게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한가지 일이 있다면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감당하기 힘든 채무감을 느끼게 되면 압박감과 낙담, 실망을 맛보게 됩니다.”(상호부조회지, 1932년 5월호, 302 쪽)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과멸과 해독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 : 7)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3) 이 약속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다시 열 번 째 계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네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충실하십시오. 영원의 견지에서 볼 때, 배우자는 여러분이 갖게 될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7) 이 계명과 “간음하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4)는 계명은 도덕성과 미덕과 순결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결혼할만한 상황에 이른 독신들은 너무 오랫동안 결혼을 연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주도해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조한 만큼 여성들에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솔하게 데이트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찾아 결정을 하십시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맨 처음부터 가르쳐온 원리에 따라 결혼과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였으면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충실하십시오. 영원의 견지에서 볼 때, 배우자는 여러분이 갖게 될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러한 배우자는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영부인 또는 여왕이 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관심사와 염려 대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와 서로 동반자로서 합당하게 되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수치심이나 후회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생활하십시오. 결혼 전에 순결하십시오. 그 후에도 영원히 정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미국인들간의 이혼율은 그보다도 더 높습니다. 요 몇 해 동안 저는 일주일이 멀다 않고 성약을 위반하고 성스러운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경우를 다루어 왔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과도 보아왔습니다. 몹시도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결과였으며, 깨어진 약속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추수였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비극은 비열하고 파괴적이며 결국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생겨납니다.

성스럽고 영원한 성약을 맺는 아름다운 신랑 신부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에 결혼 생활에 침투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을 초래하며, 때로는 이혼과 쓸쓸함, 그리고 참회의 고통으로 이끄는 이 마름병 세균같은 어두운 그림자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혹은 간통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혼식 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 신부들이 모두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때, 하나님의 성신권의 권능 아래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집행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인간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서로를 아끼주며 서로 상대방의 필요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에 금이가지 않게 합시다.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과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탐냄으로써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게 합시다.

주님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대대로 우리의 예언자들도 그러한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를 얻고 가정이 굳게 계속될 수 있으며,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8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동차나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2. 주님은 우리에게 근면과 절약의 미덕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또한 우리의 배우자와 맺은 성약들을 지키라고 가르치신다.
3. 빛은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빛을 지기란 아주 쉬운 일이나 갇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4. 핑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하신 축복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는 평화를 가정에는 안정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 그 잡지가 저를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케네스 에스 로저슨

젊은 콜롬비아 여성인 루이사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사쉬카는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초대를 받고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있는 작은 와드는 루이사에게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했다. 교회 회원들은 훌륭했지만 그녀는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모임은 너무 길었으며 그녀 나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것이라곤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

상호부조회 시간에 교사는 교회의 스페인어판 잡지인 리아호나 1987년 6월호를 사용했다. 표지에는 구세주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림이 있었는데, 구세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루이사의 주의를 끌었다. 루이사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웬지 상호부조회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건물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자 루이사는 “저 잡지를 한 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주말 무렵 루이사는 만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내릴려고 하다가 버스 계기판 위에서 리아호나와 똑 같은 제목을 가진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으나, 다음날 쇼핑을 하다가 계산대 뒤에서 그 잡지를 또 발견했다. 그제서야 루이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루이사는 점원에게 그 자지에 과제 무

싶었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주말에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잡지를 한 권 든 남자가 그녀의 계좌 창구로 다가왔다. 루이사는 이내 그 잡지를 한 권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도대체 그 잡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만 같아요.”라고 묻자 그 남자는 웃으면서 자신의 잡지를 주었다.

루이사는 잡지를 집으로 가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쓰신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요셉 스미스와 첫 번째 시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루이사는 기사를 읽어가면서 점점 더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 회원 친구 몇몇에게 선교사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첫번째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가르쳤던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인 도우 폴섬 장로는 “그 자매님은 우리에게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루이사는 나머지 토론도 열심히 들었으며, 곧 침례를 받았다.

“만일 주께서 어떤 사람이 침례받기를 원하시면 그분은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교회 잡지가 그들을 따라다니게 해서라도 말입니다.”라고 폴섬 장로는 말했다. \*



# 이 성지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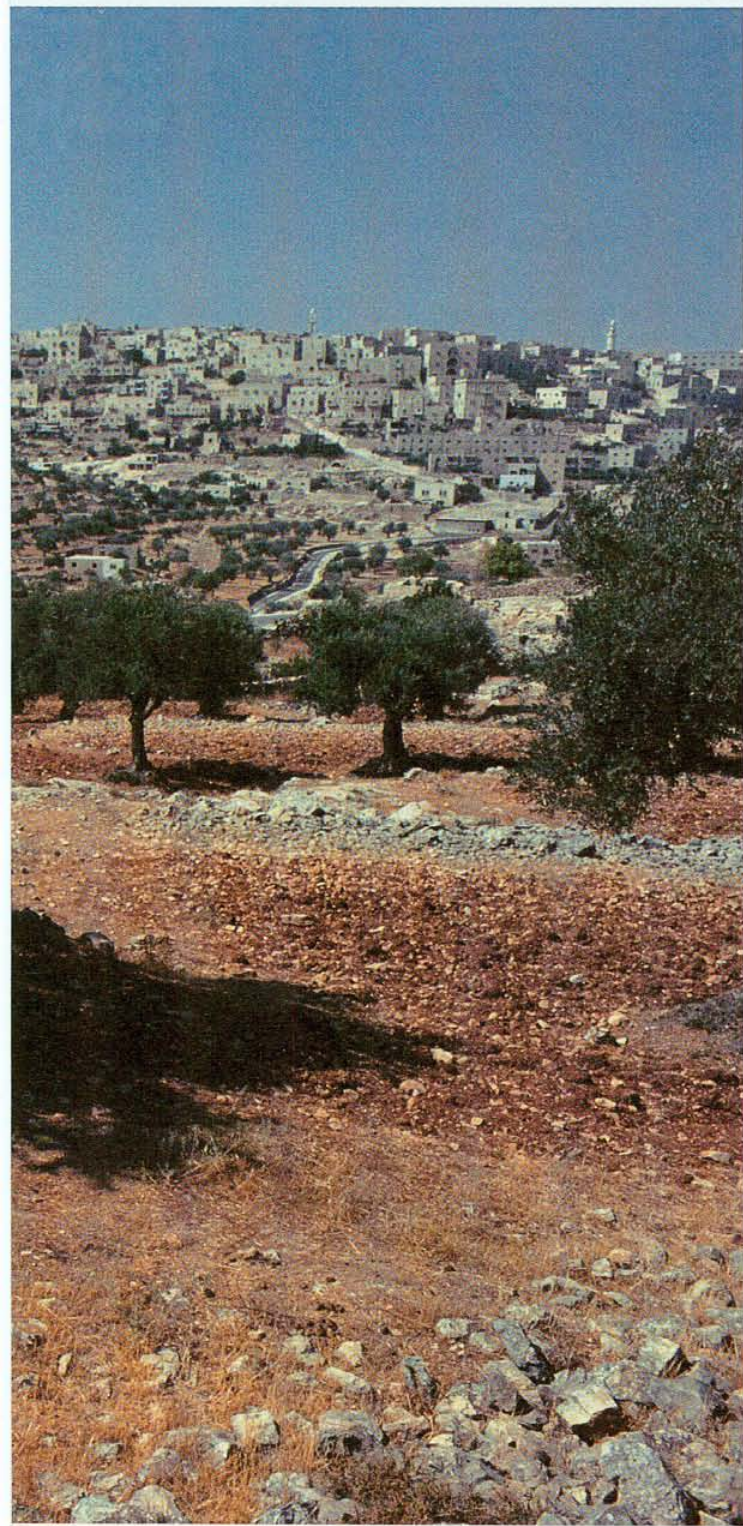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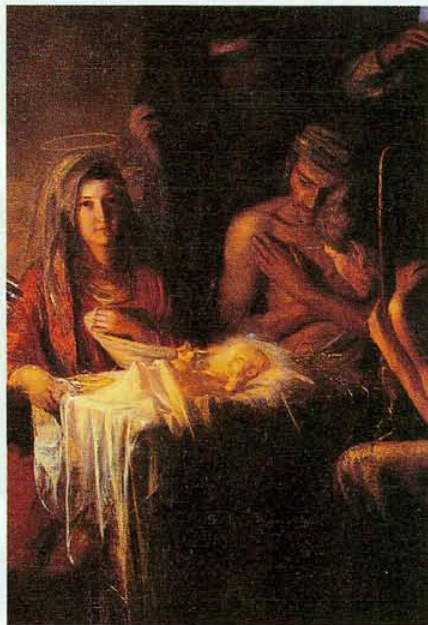


**주**님은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 풍요로운 지상에서 어느 곳이라도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푸른 풀이 무성하고 숨이 막힐듯이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경치가 아름다운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를 택할 수도 있었고, 혹은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황량하고 메마른 곳, 유목민들이 천막 생활을 하며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며처럼 자유분방하게 유랑하며 사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고, 또한 경전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리적인 잇점을 이용하셨습니다.

#### 베들레헬에서 탄생

주님은 예루살렘과 인접한 베들레헬에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째서 베들레헬일까요? 히브리어로 “떡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헬이란 지명에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어 “생명의 떡(요한복음 6 : 48참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 : 5)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떡으로  
지은 집”에서 나신 것은 그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왜 동물들 가운데서  
나셨을까요? 요한이 “하나님이 어린  
양”(요한복음 1 : 29)이라고 칭했던  
주께서는 다른 양들이 유월절 제물로  
준비되는 유월절기 중에 동물들  
가운데서 탄생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요한복음 10 : 14)로  
불리신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맨  
처음으로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 : 8~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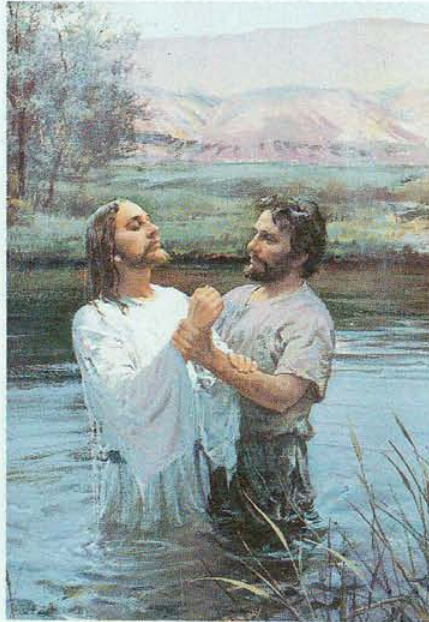
한때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요한계시록 22 : 16)이라고  
일컬으셨던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 : 2; 니파이삼서 1 : 21  
참조) 베들레헴 하늘 위에서 찬란히 빛나던 그 별은  
주님이 탄생하실 그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궤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요한복음 8 : 12)으로 불리는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그분의 성탄의 징표로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니파이삼서 1 : 15, 19 참조) 주님은  
이사야(이사야 7 : 14 참조) 및 다른  
예언자들(니파이일서 11 : 13~21; 엘마서 7 : 9~10  
참조)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 피난 및 어린 시절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고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애굽과 근접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 : 14~15)  
그러나 주님은 애굽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사렛’이란 단어가 “가지”라는  
뜻의 히브리어 ‘닛세르’에서  
기원하였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가지인 예수께서  
“가지”라는 뜻의 지명을 가진 곳에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주께서 “그 날 그 때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예레미야 33 : 15)고  
예언하였습니다.

###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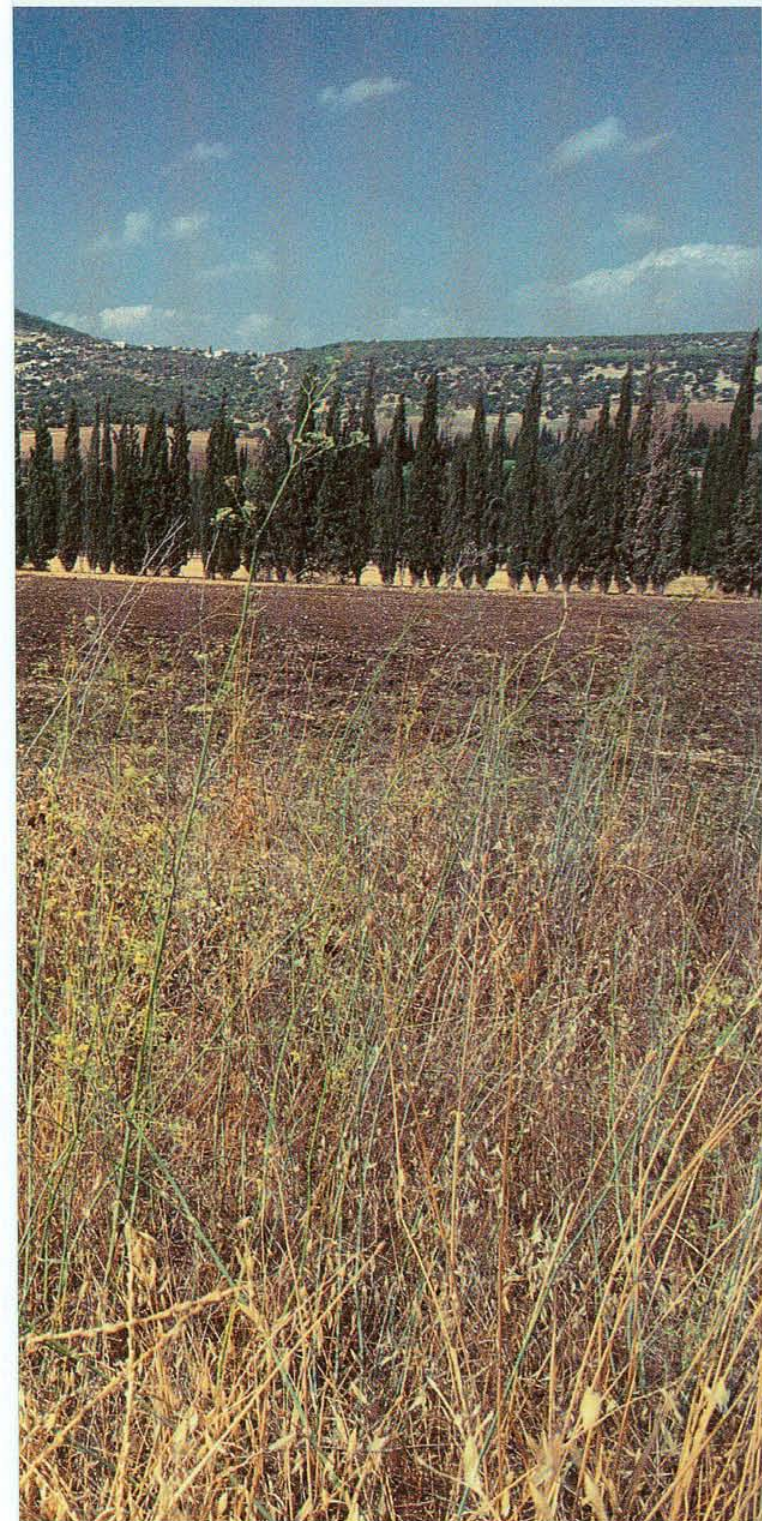
요단강은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마태복음  
3 : 15, 니파이삼서 31 : 5~6 참조) 위하여 요한에게  
침례받기로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지대에 있는 깨끗한 물 속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한갓  
강물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이 잠겼다가 나온 것을  
상징화시키려고 더 좋은 장소를 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몸소 모범을 통하여 실제로  
만물보다 낮은 곳으로부터 만물보다 높이 올라가신  
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주님이 침례받으신 대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순종과 노력을 통해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높은 곳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과 문물경에는 침례식이 베다바라  
근처에서 집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세주와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신권의 열쇠를  
받으신 곳은 변형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여기에서 볼 때 다불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 : 28; 니파이일서 10 : 9 참조) 히브리어인 베다바라는 “개울 가운데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기로 하심으로써 이 장소를 택하신 것은 오래 전부터 여호수아의 지시아래 충실한 이스라엘인들이 강을 건넌 것을 조용히 기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침례가 영적으로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시려 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산.

그 지역에 있는 산들 또한 예수님에 의해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그 산들을 영적, 시각적 보조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일주일쯤 함께 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에게”(마태복음 17 : 1~3)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곳이 헤르몬산인지



옛날 갯세마네 동산에서 자라던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돌로 만든 무거운  
바퀴로 압착했던 것처럼, 구세주도  
세상의 무거운 죄 아래에 눌리셨습니다.

아니면 다불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신권의  
열쇠를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지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 이 성전내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와 똑같은 특별한 열쇠를 맡긴  
이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는 사실 또한 주목할만합니다. (교성  
110 : 11~16)

충실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수세기  
동안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1836년  
4월 3일이라는 날짜는 부활주일과  
유월절기의 시작이 일치되는 몇 번  
안되는 날 중의 하루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대로 엘리야는  
자신이 전달하기로 지명받은 약속된  
인봉의 열쇠를 회복시키고자 유월절과  
부활절이 겹쳐지는 때에 돌아왔습니다.

이 열쇠들은 오늘날 주님의 성스러운  
성전에서 영원한 결합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 : 18)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종들이 수행한 이 의식을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의식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전의 산”(이사야 2 : 2. 니파이서  
12 : 2 참조)으로 알려져 있는  
성전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성전에서 수행되는  
의식 및 기타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산들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주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오르기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주님은 노력과  
순종의 효과를



강조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산위로  
오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혹은 어쩌면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옛날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의해 장식이 되고 회교  
사원으로 꾸며져 있는 그 산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의식과  
신앙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장장  
3일간의 긴 여행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아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택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성전은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 부분적인 지식

지하 무덤은 보편적으로 시체의 매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른 곳에 계셨으나, 그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야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제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 : 39)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많은 이가 저를 믿었”  
(요한복음 11 : 43~45) 습니다.

나사로의 사망과 무덤에서 그를  
소생하도록

부르시기까지의 4일이라는 간격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유대의 어떤 전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육신에서 영혼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기까지는 나흘이 걸리며 따라서 그런 다음에야 부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과 삶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셨음을 보여 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나흘이라는 기간이 지날 때 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나사로를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 대속의 상징

그 성지에서 감람 나무는 각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람 나뭇가지는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이 나무에서 식량과 빛과 열기와 목재와 연고와 약을 구합니다. 감람 나무는 옛날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낙엽수가 아니라 상록수입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설령 그 나무를 자른다 해도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나와 무궁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첫 단계를 이루시고자 감람산 아래로 오셔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겐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개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겐’은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멘”은 “기름”—특히 감람 나무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감람 나무에서 기름을 짜기 위하여 큰 돌로 만든 무거운 바퀴 아래에 감람 열매를 넣고 바퀴를 돌립니다. 따라서 겐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그리스도는 실제로 세상의 무거운 죄아래 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몸의 땀구멍에서 그의 생명의 “기름”인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 : 44 참조; 교리와 성약 19 : 18)

예수님에게 주어진 호칭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역시 그리스어로 “기름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병자에게 집행하는 의식 중에는 성별된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는 의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 위에 성별된 기름이 부어지고 “나는 이 성별된 기름을 그대의 머리 위에 붓노라”라는 성스러운 말이 들리거든 그 최초의 대속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한 아직까지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주며,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대속의 힘과, 빛을 주는 기름을 얻기 위해 짜내는 감람 나무와 같이 구세주께서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온 몸의 땀구멍에서 우리 구속주의 보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겐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대속의 두번째 단계는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기 수시간 전에, 빌라도는 유월절 번째물로 근처에서 양들이 준비되고 있는 같은 시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 : 13~1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그리스어) 혹은 갈보리(라틴어) 언덕이었습니다. 해골이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대속의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구세주께서 죽음을 넘고 들리우시어(요한복음 12 : 34 참조)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키려 했던 모리아산에서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골고다(혹은 갈고리)언덕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됐던 대로 그곳에서 주님의 대속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활이

실현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간 계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20, 22)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 : 15)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 :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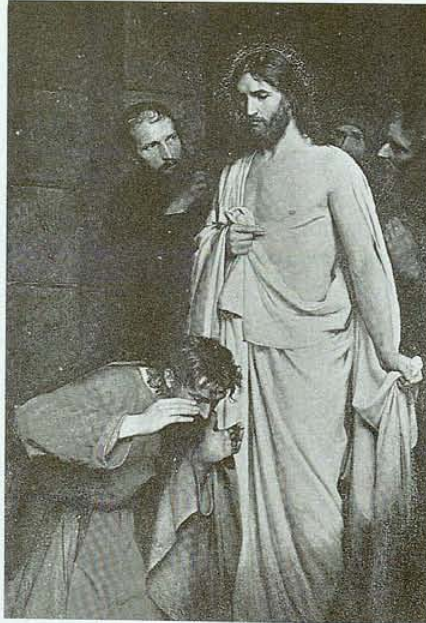
우리로 모두 아직 이러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진실한 제자들은 그러한 성스러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 미 래

그러나 구세주의 임무가 그 성지(고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요한복음 10 : 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다른 양들에 대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 미대륙에 오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5 : 21 참조) 주님은 이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후, 그들에게 주님의 임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물문경이라는 이 귀중한 기록은 매우 정확하며 전도에 관한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 뉴욕 북부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때, 그 곳에서 약속된 만물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말일의 사업이 예정되었던대로 시작되어 슬픔 속에서 이 날을 기다려 온 세상에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사업을 통해 성지로 만드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셔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 몸의 땀구멍에서 쏟아져 나왔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성의를 불꽃처럼 밝히 빛내시며 그 성스러운 도시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이사야 40 : 5)게 될 것이며, 그가 돌아 오실 감람산은 “둘로 갈라질”(교리와 성약 45 : 48)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할 성스러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성지에서 맡으셨던 임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양들에 대한 주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복음 가운데서 주님의 체험을 통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할 우리의 역할을 깨닫고, 주님의 종이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불멸에 관한 불변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교회에 대한 공격에 응답함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몇몇 학생들은 우리 교회를 무척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온갖 끔찍한 일을 들어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 우리들의 대답

형제님이 구세주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형제님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기본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형제님이 속한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뒤집어 씌워 비난한다면 더욱 속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상심이 분노로 변하게 되어, 그 어떤 사람이 말한 말보다 형제님이 품게 된 감정이 형제님에게 훨씬 더 해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님이 구세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박해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 및 동기가 있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서 형제님의 반응을 따보기 위해 그 말을 단순히 되풀이해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물몬들은 이러 이리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2.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당신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3. 불행하게도 단지 형제님을 괴롭히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말일성도의 높은 표준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형제님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표준을 나타내 보이면, 그것은 곧 그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를 반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형제님의 개인적인 이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형제님이 그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형제님의 교회를 터무니없이 비난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형제님의 행동은 형제님이 말하는 그 무엇보다도 형제님의 신앙을 웅변적으로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형제님이 정직한 사람이며 말과 행동이 깨끗하며 화내기를 억제하고 주위를 화평케 하며 모든 사람을 다정하게 대한다고 알려져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제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둘째로,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적이 생기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 대신 조용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 형제님과 맞선 사람이 성실하게 보이면 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공언하는지 그 이유를 그에게 설명하겠다고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 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구세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어떻게 매주 구세주를 기억하며 성찬을 드는지 말하십시오. 물몬경을 소개하고 그 책을 읽도록 우정어린 말로 권고하십시오. (그 책의 소개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헌의 구절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강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형제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때로는 미소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또 어떤 때는 반물론 필름이나 출판물을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들이 확신하는 바 구세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런 점을 토론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그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는 “거듭남”을 믿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 회개, 침례, 성찬을 취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은혜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니파이이서 10 : 24; 25 : 23 참조) 우리는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며 우리 죄의 짐을 덜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일성도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기독교인”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외에 계시받은 원전에서 구세주와 그의 복음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시로 얻은 우리의 가르침을 제외시키고 “기독교인”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마음입니다.

형제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예수님께서 예언자와 사도를 통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굳건히 하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형제님의 참다운 신앙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형제님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에는 만일 어떤 사람들이 형제님의 믿음에 대해 험담한다면 형제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지 기억하십시오. 구세주께서 박해를 사랑으로, 불친절을 친절로, 참지 않음을 참음으로 되돌려 주신 모범을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 청소년들의 대답

멕시코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나 말일성도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저의 친형제 자매 외에는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회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를 눈여겨 보면 불수록 우리의 연행을 주시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에게 교회에 대해 비판을 가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비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논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우정을 갖고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회 표준대로 철저히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표준을 유지하는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때 저는 그때를 교회와 저의 신앙에 대해 토론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스우라 카스타니다 에이  
이라푸아토, 멕시코

무엇보다도 변명을 하거나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형제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알고 지내는 청소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질문하십시오. 그들이 다른 교회에 다닌다면 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회와 그들의 교회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해 얘기하십시오. 양자 간에 많은 유사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의 교회보다 더



났다는 태도는 피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가능한 한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주요한 근거 자료로서 성경을 이용하되 물론경도 이용하며, 형제님이 성경을 참조하듯 물론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만약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형제님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물론이 기독교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형제님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그 신앙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님은 그들의 신앙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토론이 논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 토론을 중지하고 후에 다시 시도하도록 하십시오.

레벡카 닐슨, 19세  
브린 모어, 펜실베이니아

그들의 말을 부드럽게 시정하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하십시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하고 신앙개조 제

11조를 기억하십시오.

케빈 달튼, 12세  
라스베가스, 네바다

저는 최근에 텍사스주 성 안토니오 선교부로부터 귀환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문제로 상대로 맞서고 논쟁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꾸밈없는 간증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았습니다. 간증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님의 간증에 대해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구세주께서는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다는 것과 이 방법이 형제님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 주는 훌륭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케빈 쿤딕, 21세  
옥든, 유타

그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에도 많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응해서 제가 취하는 제일 첫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올바른 응답을

주시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셰리 길슨, 16세  
오렌지빌, 캘리포니아

무엇보다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형제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형제님의 신앙을 나눌 기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페니 호른, 16세  
리보니아, 뉴욕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여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로서의 모범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살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말일성도로 인정받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서 결점을 잡기 위해 우리를 눈여겨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 역시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성 115:5)

만약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복음과 교회가 진실됨을 알게 되리라고 저는 간증합니다.

클로리아 유니스 타피아  
카메오, 21세  
비야 이달고,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미소를 띠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킴버리 갠돌프, 13세  
프리포트, 일리노이

# 착한 일을 찾아서 함

글렌 요르겐슨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고 싶습니까? 시도해 볼 만한 훈련 방법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장점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좀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1.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친구, 가족, 선생님 등 누구든지 좋습니다.

2. 그들 옆에 있는 동안 그들이 행동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 즉 미소, 다정한 행동, 친절한 말, 기꺼기 경청하려는 태도, 너그러운 태도, 감사의 표시, 유머, 정직의 실천 등을 지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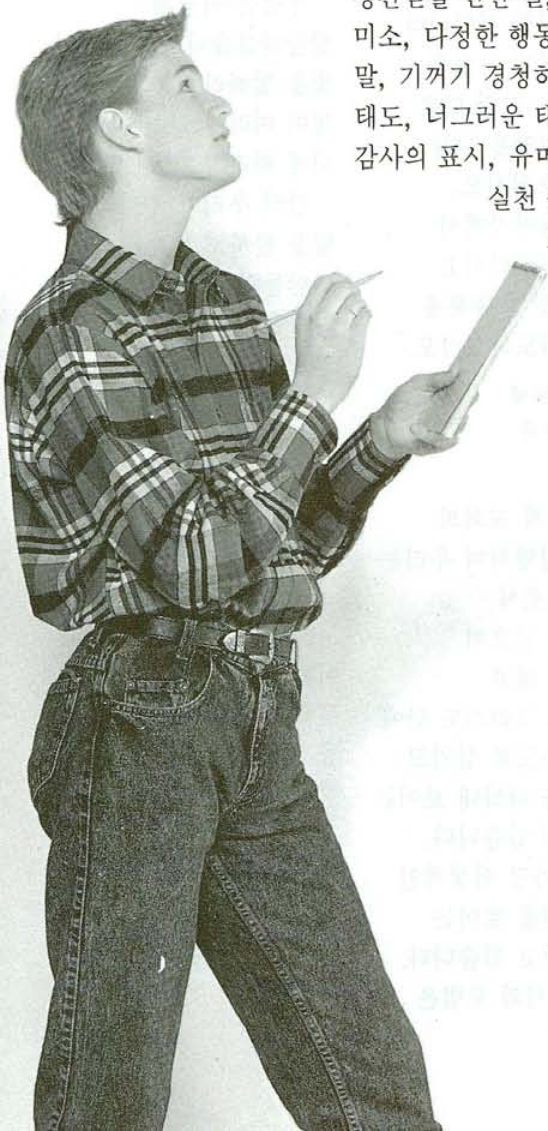
3. 여러분이 관찰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장점을 두가지를 목록에 기입하십시오.

4.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 그 사람을 칭찬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진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일 주일 동안 매일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되풀이하십시오.

5. 친구에게 여러분이 시도했던 바를 설명하고 다음 이 주일 동안 함께 그렇게 해보십시오.

6. 마지막 시도로서, 여러분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의 이름을 목록에 기입하십시오. 이 사람을 지켜 보고 칭찬할 만한 일을 세 가지 행하면 그것들을 기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그가 한 그 일을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 보았음을 알게 하십시오.

7. 이 일이 쉬워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



# 설교단에 선 적군 병사

더블류 허버트 클로퍼

“우리가 미워하던 군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사랑이 많이 담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홀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세계 제2차 대전 발발당시 동독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독일군에 징집되었다. 부친은 그의 두 보좌를 통해 전쟁터에서 선교부 업무들을 지시했다.

가족을 떠나 덴마크에 배치되어 있던, 어느 크리스마스 전 안식일에 부친께서는 몹시 외로움을 느끼고 성찬식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 에스브제르그에 우리 교회 지부가 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곳 어딘가에 교회 지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비록 그 나라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군복을 완전히 갖춰 입고 좋아하는 찬송가 곡조를 흥얼거리며 시내 거리를 돌아다녔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자신을 교회에 데려다 주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어린 소녀가 부친 앞을 지나다가 그에게 덴마크어로 “물론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부친을 지부 집회소로 데려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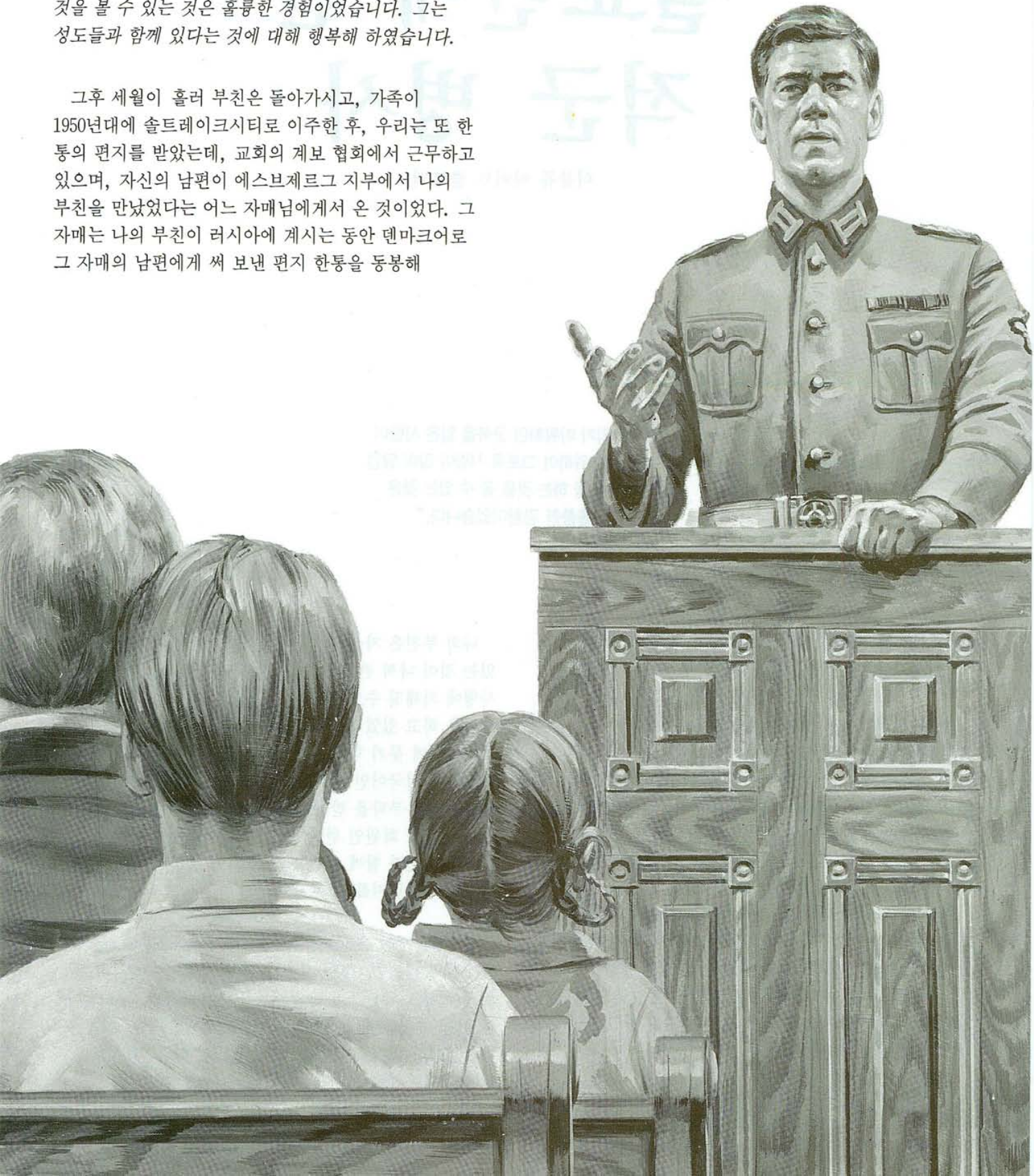
나의 부친은 자신이 적국 국민들의 예배 의식에 함께 있는 것이 나찌 관리들에게 발각되면 반역죄에 몰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친은 문앞에서 지부장님께 무기 혁대를 건네주었으며, 성찬식 모임중에 적국어인 영어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이는 위험까지 무릅썼다.

그 지부의 회원인 한 어린 덴마크 소녀는 그들이 적국의 군인과 함께 했던 묘한 경험에 관하여 나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어젯밤, 저는 우리 지부에 갔었습니다. 그곳엔 바로 자매님의 남편인, 독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덴마크 국민들이 독일인들을 미워하지만, 우리는 이 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중들에게 영어로 말씀했으며, 윌리엄 어럼 피터슨 형제님이 통역했습니다. 자매님의 남편은 한 달 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잃었으며 선교 본부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군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사랑이 많이 담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후 세월이 흘러 부친은 돌아가시고, 가족이 1950년대에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한 후, 우리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교회의 계보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의 남편이 에스브제르그 지부에서 나의 부친을 만났었다는 어느 자매님께서 온 것이었다. 그 자매는 나의 부친이 러시아에 계시는 동안 덴마크어로 그 자매의 남편에게 써 보낸 편지 한통을 동봉해



주었다. 그 편지는 독일군 당국자들로부터 검열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는 러시아에 있는 독일군 장교가 영어로 쓴 편지가 덴마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착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1944년 5월 17일자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슨 형제님 귀하,

2개월 전에 저는 덴마크를 떠났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저는 전쟁의 참상을 겪었습니다만 놀라움에도 해를 입거나 병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다시 고향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아내와 자녀들은 연일 독일 상공을 날아다니는 적비행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브제르그에 있는 동안 만났던 형제님과 다른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해 부디 형제님께서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저의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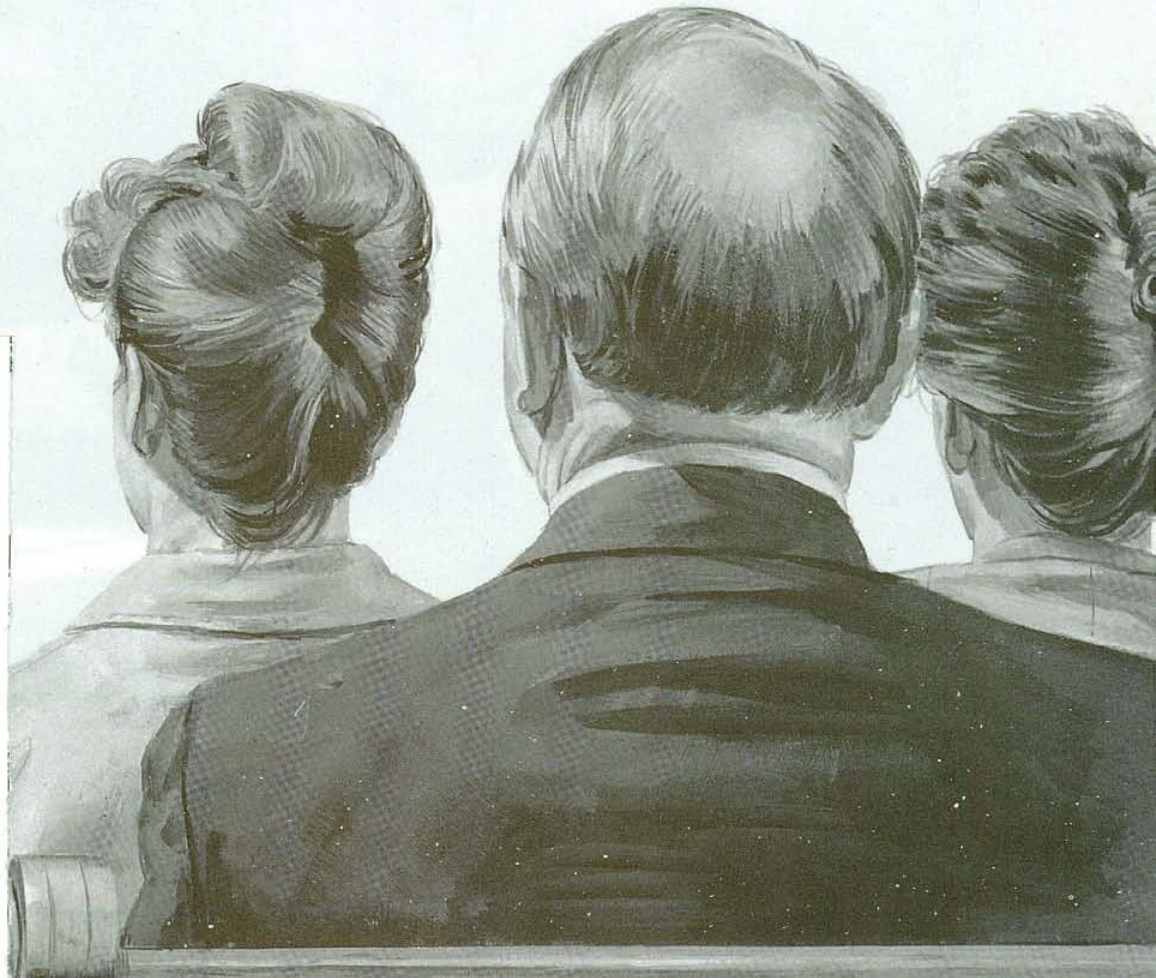
사랑하는,  
헤르베르트 클로퍼

나의 부친께서 복음과 성도들에게 쏟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 것이었다. 부친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덴마크에 있는 지부를 찾아가 회원들과 함께 사랑과 간증을 나누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동독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부친은 러시아 영토내에 갇혀있었던 전범 수용소에서 아사하셨다. \*

더블류 허버트 클로퍼 형제는 솔트레이크시티 이글 게이트 스테이크 부장이다.

## 성도의 빛

복음의 가르침이  
충만하게 실려있는  
월간 성도의 빛은  
의롭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살아계신  
예언자들의 영감에  
찬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및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빛을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읽는 모든 분이  
영적인 감동과





# 온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준** 비라는 낱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말이다. 개인이 사전 준비없이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기는 가능하겠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가족이 안식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미루어 놓으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것은 안식일 이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있는 대다수 가정에서 해야 할 준비로는 안식일에 입을

옷을 미리 세탁하여 다림질하고, 신을 양말을 찾아 놓고 구두를 닦고 개인용 경전을 챙겨 놓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 준비에는 일요일 전에 식품 및 기타 일상 용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포함된다. 그 주일의 나머지 육 일 동안에 물건을 사들으로써 안식일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짐들이 주부에게 떠맡겨진다. “청소와 안식일의 식사 준비 및 그외의 몇 가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쁨에 넘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안식일을 바랄 수 없었어요.”라고 한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이 바람직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토요일에 준비했을 때에는 안식일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고 그 날이 진정 안식의 날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을 아내에게만 떠 맡기지 않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가족 시간을 함께 준비하려면 미리 집안을 청소해 두고 식품을 구입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날 쓸 충분한 물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함께 나눔으로써 가정 생활에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생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안식일에 우리 가족이 갖고 싶은 평화를 밀어내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식일에 혼란이 덜하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안식일 준비를 더 빨리 하기 위해 여태까지 해왔던 것 보다 더 일찍 계획하고 완료하도록 합의를 보았어요.”

편부 편모는 그들의 가족이 안식일 준비를 할 때 양부모의 가족보다 더 곤란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할 일을 계획하고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은 양부모나 편부모에게 똑같이 효과적이다.

“정성을 다하여”(교리와 성약 59:13) 일요일의 음식을 장만하라는 주님의 권고는 모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준비 방법이다. 어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앞당겨 준비함으로써

일요일 식사와 관련된 일을 단순화시킨다. 또 어떤 가족들은 일요일에는 아예 간편한 식사를 마련한다. 만약 아버지와 아이들이 식사 준비, 상 차리기, 설거지등을 도운다면 어머니도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 합당한 활동.

말일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 많은 규칙을 주지 않으시고 “기도의 집에 가서…네 성찬을 바치”며 “네 일을 쉬”(교리와 성약 59:9~10)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는 한 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마음을 산란케 했던 일들과 노동에서 벗어나 완전히 쉬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하며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비해 둘 것을 가족이 함께

가족은 표준 경전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함께 나누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식일의 참 뜻을 지키고 즐길 수 있다.

결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축복하고 성결케 하라고 권고하셨다.

(출애굽기 20:11 참조)

이 날에는 우리만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0:9~11 참조) 안식일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누군가를 그날에 일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또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요일에 정규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직장은 고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물론 직업 중에는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직업도 있다. 이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왜 일요일에 우리가 일해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참석치 못하더라도 그날 중에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 줄 수가 있다.

우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날 하루 복음을 나누고 기회 닿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도록 헌신할 수 있다.

우리와 자녀들이 어떤 일이 안식일에 합당한 활동인지 판단해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그것은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일인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인가?







그것은 영성을 고양시키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인가?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른다면 안식일이 즐거운 날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58:13 참조)

### 안식일의 복장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며 여호와를 주님께 영광드리고 경배하기 위해 세상적인 관심과 근심을 제쳐 두어야 하는 날이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지향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세상적인 일을 한편에 제쳐 두어야 한다. 주중에 우리가 입은 평상복 또는 작업복을 벗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입는 가장 좋은 옷이란 그저 그들이 가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수선이 잘 된 옷이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말끔하고 깨끗하고 안식일의 정신과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사스럽고 남에게 과시하는 듯한 옷은 더럽고 정숙하지 못한 옷 만큼이나 품위를 손상시킨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 집회뿐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임에서 돌아와 평상복으로 바뀌어 입기도 한다. 물론 정장 차림으로 계속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 모임에서 느꼈던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장이어야 한다.

## 예 배

예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마가복음 2:27)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으며 더 나아가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교리와 성약  
59:10)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휴식하고 예배할 때 영과 몸이 다  
새로워진다. 특히 금식일에  
그렇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금식하면 가족을 결합시키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어린  
아이들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금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 한 부부는 그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예배를 차분하게  
드리게 됐는가에 대해 들려 준다.  
“우리는 제일 어린 아이에게도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도록  
겨렷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책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노래할 동안  
아이들이 찬송가 책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사나 악보를  
짚어가게 합니다.”

“성찬식에서 행하는 행사, 즉  
역원의 지지와 해임을 물을 때와  
특히 성찬을 취할 때 참여하도록  
겨렷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 도중에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아이들 귀에  
속삭여 줍니다.”

어떤 가족들은 종이와 연필을  
성찬식에 가지고 온다. 나이가 좀  
든 아이들에게 성찬 말씀의 요점과  
나중에 토의하고 싶은 질문을 쓰게  
한다.

또 어떤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 가정 예배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식탁에 둘러 앉는다고 한다.  
“저의 남편이나 제가 그날의 안식일  
주제를 소개합니다.”라고 한  
어머니는 말한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지혜의 말씀이 주제였어요.  
식탁에 놓인 것은 신선한 과일 한  
그릇, 집에서 만든 토마토 주스 한  
병과 얼마 간의 마른 밀이었어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이야기와 경전을 읽고 그날  
내내 그 주제에 대한 예를 지적하곤  
했어요.”

“저녁에 다시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아이들은 그 주제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안식일을 신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안식일 주제  
건의함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채운답니다.”

## 경전 공부

경전 공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들은 특정한 경전을 맨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나 신앙  
또는 속죄와 같은 특정한 주제를  
갖고 표준경전에서 찾아 읽는  
방법도 있다.

또 어떤 가족에게는 일요일이  
경전 공부의 날이고 주중 다른 날은  
경전을 큰 소리로 읽는 날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에 갖는  
가정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안식일을 활용한다.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교회  
모임은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공과를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활동하기를  
즐긴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은 영적인 면에서  
힘을 얻으며 주중에 있을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에 이길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경전을 읽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일요일에 가족  
중심의 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들은 일요일에 경전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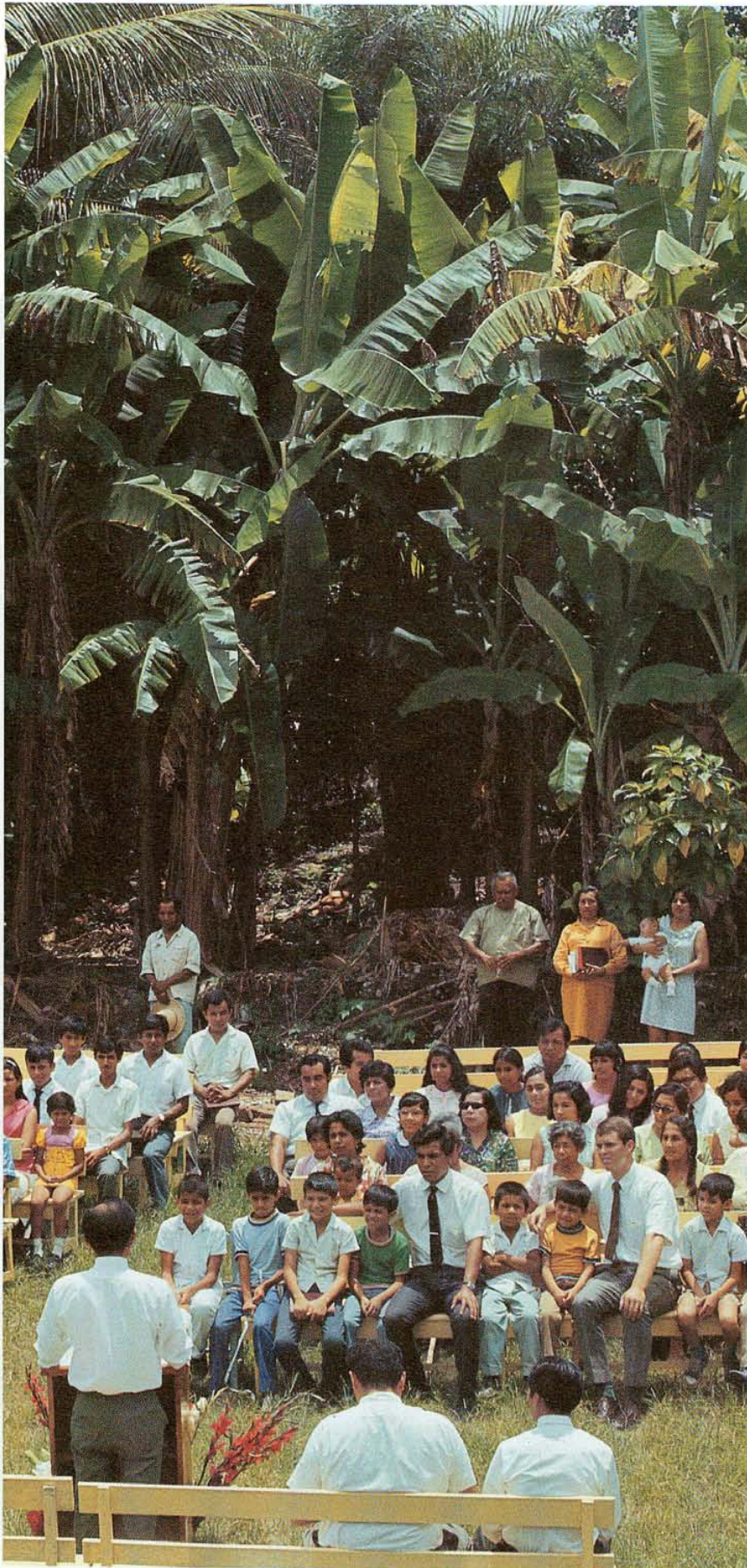
복음 공부와 더불어 가족들은  
일기를 쓰고 친척과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 중심의 게임을  
하거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 봉사와 사랑

안식일의 활용 방법을 계획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가족은 매주 안식일에 얼마 동안의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바쳤다.

아프거나 입원한 이웃이나 와드  
회원은 다른 가족이 방문하는 것을  
고마워할 것이다. 어떤 가족은  
이웃에 있는 사립 요양소에 집에서  
구운 과자를 가지고 가서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안식일이 “친척과 친구를 방문함,  
가정 복음교육을 함, 가족 역사를  
작성함, 잠시 낮잠을 잠, 선교사나  
군인 또는 친구에게 편지함, 다음  
주일의 공과를 준비함, 어린  
아이들과 놀아줌, 어떤 목적을 위해



금식함, 교회 밖에서 특별 모임을 갖고 영적인 시를 쓰는 등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한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2년, 270~71쪽)

### ..... 긍정적인 면으로 격려함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격려할 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 날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가족 게시판에 붙여 두는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은 자녀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이 목록을 알려 준다. 이 방법은 빨리 가르칠 수록 좋다. 나이가 더 든 아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새로운 것이면 적용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은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이 날이 하루 종일 자녀들을 위한 활동 시간이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명상하고 계획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가꿀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이 될 필요가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 일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에베소서 6 : 11 참조)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

# 샤르뜨르의 탑

리차드 엠 롬니





샤르트르 대성당의 쌍둥이 탑이 하늘로 향해 있듯이 이 도시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청소년인 이들의 포부도 끝없이 뻗어간다.

그들은 둘 다 열 두살이고 둘 다 부끄럼을 잘 타는 편이다. 그러나 우젠 다남베와 카티아 조비리는 프랑스 파리 서남쪽 보스평야에 있는 작은 도시 샤르트르의 지부에 다니는 유일한 청소년이다.

우젠과 카티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채색 유리창이 있는 두 뿔죽탑의 고딕식 걸작 건물인 대성당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다. 샤르트르의 탑은 프랑스의 밀 대부분이 생산되는 넓고 광활한 평야의 몇 마일 밖에서도 보인다. 그 대성당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도시와 나라의 지도에도 크게 나온다.

그러나 우젠과 카티아가 다니는 교회 모임은 그 도시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것과는 거리가 먼 건물에서 열린다.

“우리 지부의 모임이 어디서 열리는지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라고 카티아는 말한다. “그 건물은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대성당이 있는데 왜 제가 그 성당에 다니지 않는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카티아와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카티아가 왜 그 지부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배웁니다.”라고 카티아는 말한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젠 역시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반응을 얻는다.

“학교 친구들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의 교회에도 종교적인 공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애들은 대개 마지못해 참석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그들은 매우 놀래요.”

우젠은 교회란 모두 똑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무렵 선교사들이 우젠 집을 방문하여 그의 가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젠은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그 복음 안에서 젊은이들이 할 일이 많음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침례를 받았고 나이가 이르자 집사 신권을 받았다.

“현재 저는 이 도시에서 유일한 아론 신권 소유자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소유자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성찬식에서는 제가 성찬을 돌립니다.”

그 도시에 우뚝 솟아 있는 대성당의 두 뾰족탑처럼 우젠과 카티아가 모든 면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카티아는 다섯 자녀 중 장녀이고, 우젠에게는 27세위인 형이 있다. 카티아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랐으나 우젠과 그의 어머니는 개종자이며 가족 중 유일한 개종자들이다.

“저는 독서, 하프 연주, 자전거 타기, 장기와 시골 할머니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말타기를 좋아해요.”라고 카티아는 말한다.

“애의 취미는요.”카티아는 우젠을 가리키면서 말한다. “먹는 거예요.”

우젠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놀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저는 케이크를 아주 좋아해요.”



샤르트르 대성당의 쌍둥이 탑이 하늘로 향해 있듯이 이 도시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청소년인 이들의 포부도 끝없이 뻗어간다.

샤르트르시에 솟아있는 대성당은 모양이 다른 두 탑과 아름다운 채색창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을 좋아해?”

“어떤 종류가 있지요?”

“먹는 것만이 그가 하는 일이 아니예요.” 카티아는 자신의 농담을 재미있어 하면서 말을 계속한다.

“애는 자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우젠은 자신이 운동, 특히 달리기, 배구,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젠은 자기가 일요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냥 침대에서 빠져 나오면 돼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카티아는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투덜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기를 원해요.”

이들은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대성당의 유명한 쌍둥이 탑처럼 공통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는 둘 다 노래하기를 좋아해요.”라고 카티아는 말한다.

“노래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죠.”라고 우젠은 말한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예외이죠.”

노래를 부탁하면 그들은 찬송가를 잇달아 부른다. 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노래는 끝날 줄을 모른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다. 노래를 들으면 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는 이 작은 건물은 그들이 얼른 떠나기를 원치 않는 성소임을 확신하게 된다.

“매일 바쁜 생활이고 학교 수업은 힘들어요. 학과목(영어, 미술, 역사, 지리, 수학, 불어, 과학, 물리와 체육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있어요.”라고 우젠은 말한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시험치는 바카로레아라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끝이 나는 혹독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들이 저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계속 조르고 있어요.”라고 카티아가 말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른 유혹이 있겠죠. 또 그 유혹이 더 거세어지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 유혹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올바르게 노력해야 되지요.”

교회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작은 지부에서는 서로를



대부분의 프랑스 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샤프트르시에는 인생을 밝게 보는 우젠과 카티아 같이 신선한 꽃과 야채를 파는 야외 시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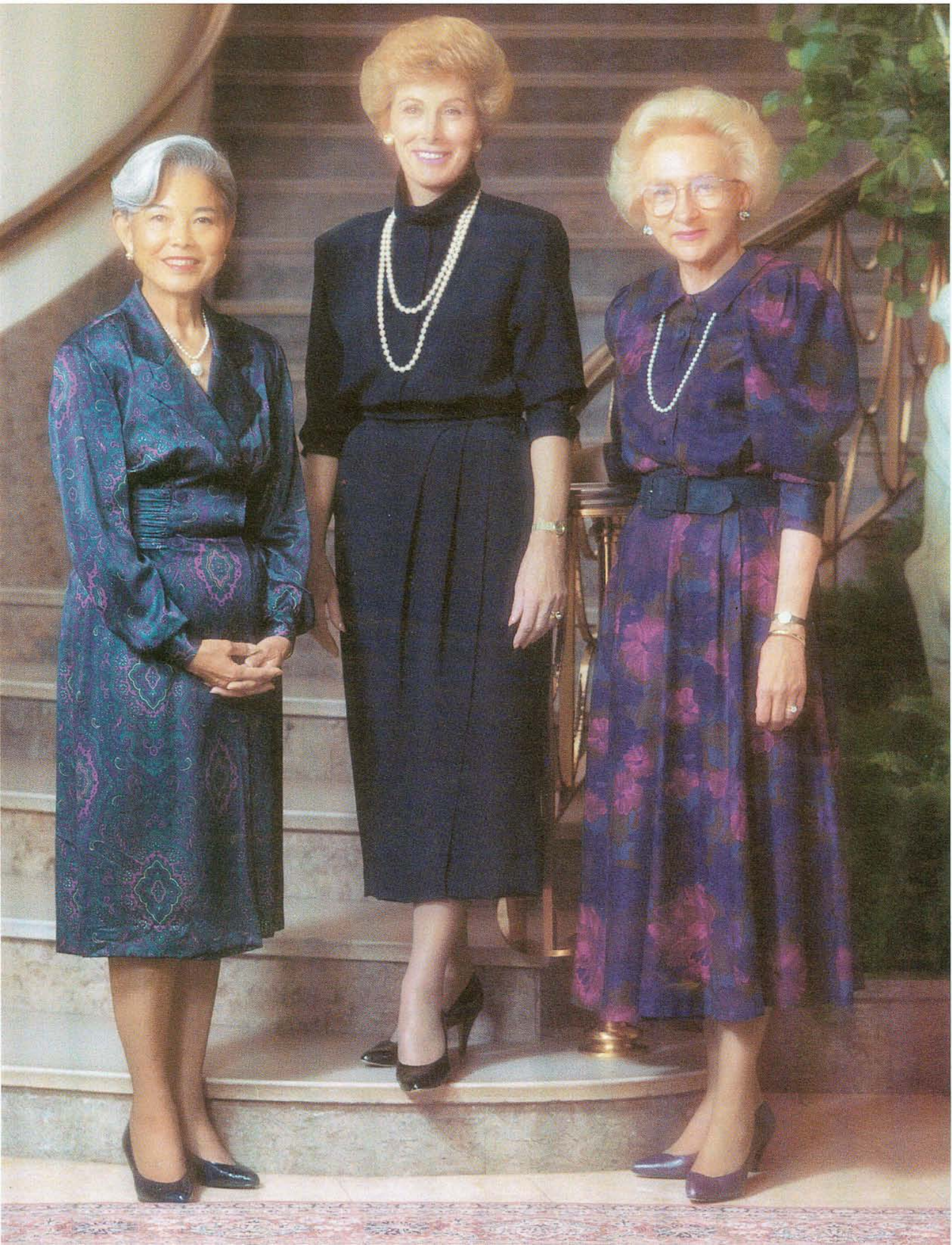
잘 알고 지내요.”라고 카티아가 말을 계속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잘 단합된 대가족과 같아요.”

우젠은 샤프트르 지부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낙관적으로 말한다. “우리의 인원 수는 많지 않지만 충분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 둘 밖에 없을지라도 초등협회에는 열 다섯 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범을 보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한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마련될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우젠과 카티아는 참으로 특별한 젊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부에 청소년 또래들이 많지 않고 그들에게 알맞은 활동도 없다고 불평할 만도 한데 도리어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기 보다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샤프트르에 있는 교회는 지금은 작지만 계속 자라고 있다. 우젠과 카티아와 같이 열 두 살 소년 소녀들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비록 어리지만 교회를 강화시키는 탐이 되고 있다.\*



## 새로 부름받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인사 말씀

**저**희는 자매님들께 사랑과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상호부조회의 사업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상호부조회 사업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매님들이 중요시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적인 간증을 확립함

“간증은 선택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지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엘레인 엘 잭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말합니다. “저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간증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으며 이 선택은 제 인생에 모든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간증을 확고히 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신앙과 소망을 열심히 연마할 수 있도록 간증이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신앙과 소망을 갖도록 도와 주는 주요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 가치있는 사람이 됨

여성들은 각자 자신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하게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상호부조회

건물에서 찍은 사진

중앙, 엘레인 엘 잭 회장, 왼쪽, 지에코 에이치 오까자끼 제1보좌, 그리고 애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제2보좌.

되도록 생활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의로운 생활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모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성과 진정한 진보를 막는 장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며, 지금의 나에 대해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잭 회장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화와 이해를 가져다 주며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 사랑을 키움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니라”(모로나이서 7 : 47)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의 표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사랑으로 할 때 풍성하고 기쁘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지식을

키워가며 인격을 향상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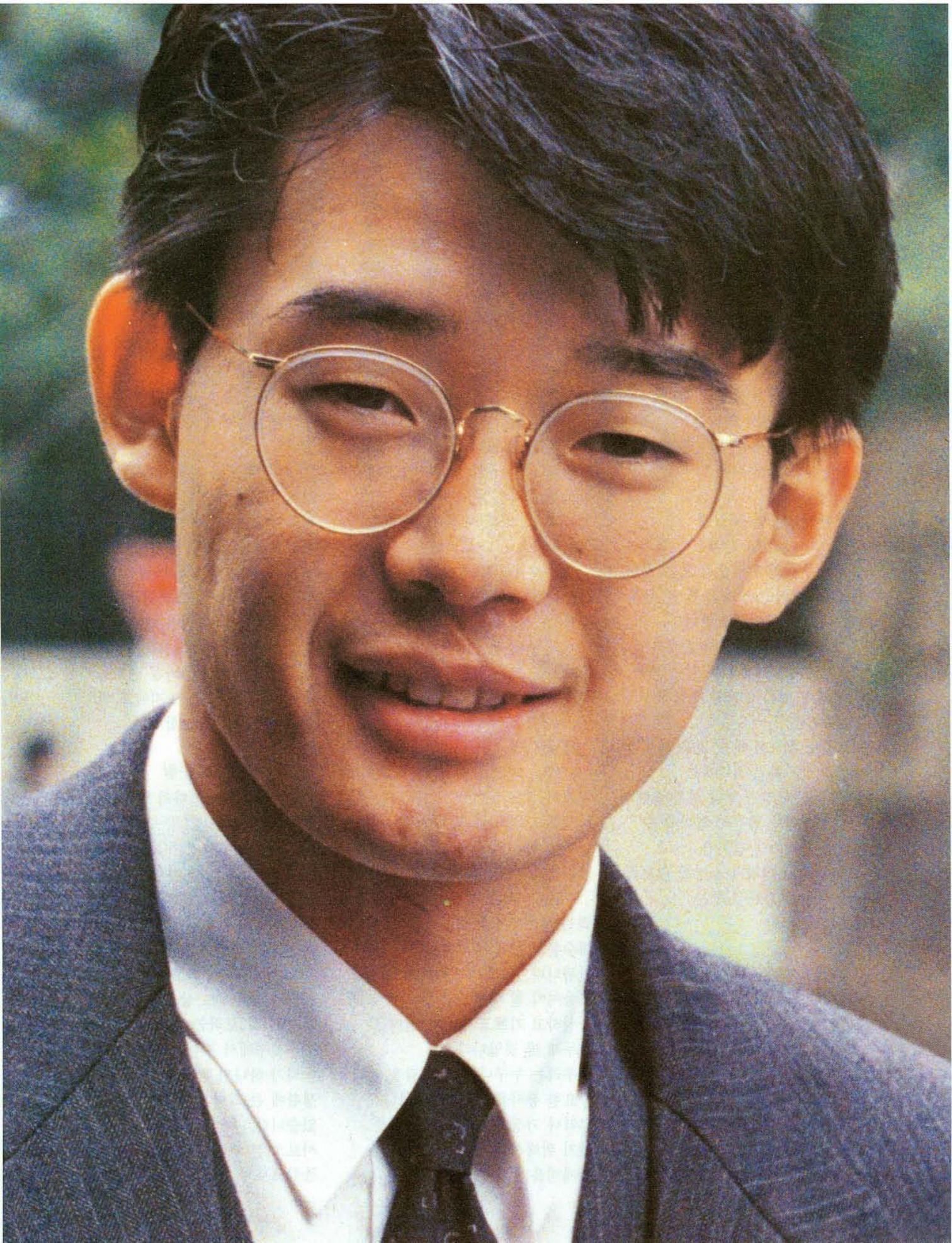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든지 않든지 혹은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회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가정은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가르침을 주며 변함이 없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고 안되는 것은 개인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에코 엘 오까자끼 자매는 말합니다.

### 단합된 자매애를 누림

“경전에 나오는 입다의 딸과 그의 친구들(사사기 11 : 37~40) 및 마리아와 엘리사벳(누가복음 1 : 39~42)과 같은 여성들의 자매애에 대한 모범은 오늘날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애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2보좌는 말합니다.

구세주께서 주신 “생수”에 의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 각자의 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자매들의 서로 다른 점과 가치를 함께 나누며 즐거움으로써 하나로 결속됩니다. \*



# 너무 비싼 대가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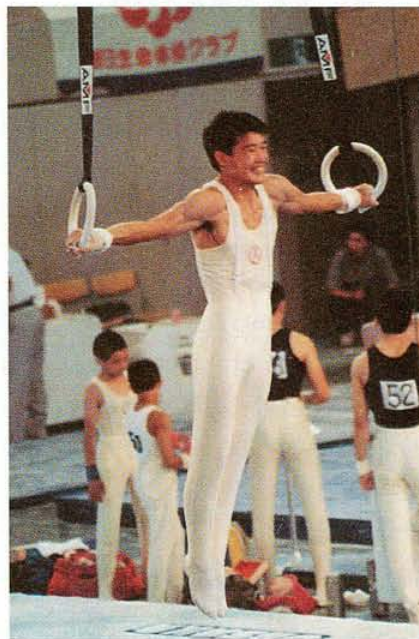
스티븐 케이 크리스찬슨

“지난 십년간 제가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9년 2월 5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일본 도쿄 동스테인크의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었다. “모든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책임입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씀했다.

회중 가운데 한 젊은이가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히데마사 야다베였다. 도쿄 근처에 있는 쓰쿠바 대학교 학생인 그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에 관해 때때로 생각은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선교사업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히데마사 형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일본 국가 대표 체조 팀에서의 그의 위치와 국제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뜻했다.



“그 대학교에는 체조 선수가 몇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많은 시간을 함께 연습한 팀 동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팀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탈락한다는 것은 전 팀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사로 나갈 것을 원했지만 어떻게 팀을 떠날 수 있을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1981년에 침례받은 후 가족 중 유일한 개종자인 히데마사 형제는 충실한 회원이었다. 1987년에 옥스 장로가 도쿄에 와서 몇몇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히데마사 형제의 집도 방문했었다. 그 때 옥스 장로는 히데마사 형제를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축복이 기억으로 되살아난 히데마사 형제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옥스 장로가 권고한 말씀을 받아드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육 개월 간 체조와 학과 공부로 저의 시간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저는 전일본 체조 우승권 쟁탈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세계적 수준의 경기에 대비해서 적응 훈련을 시작했을 때에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저의 소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학생 우승 대회 뒤 저는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을 만나 접견을 가졌습니다. 접견 도중 스테이크 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이 편리한 때에만 선교사로 나갈 것을 계획한다면 주님께서도 아마 그분에게 편리한 때에만 형제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한 지원서를 즉시 보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히데마사 형제가 그의 뜻을 팀 동료들과 감독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즉각 반대에 부딪혔다. “팀 동료들은 모두 저를 못가게 막으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전 일본 우승권 획득은 우리 팀 동료들이 젊음을 불사르면서 노력했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팀을 저버린다고 히데마사 형제를 비난했으며 전국 체전에서 우승할 기회를 망쳐버렸다고 책망했다. “왜 일 년만 더 기다리지 않니?”라고 그들은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척 노력해 왔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종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해. 그런데 왜 너는 우리를 괴롭히니?” “저는

팀 동료들이 그동안 저를 도와준 것이 고마웠습니다.”라고 히데마사 형제는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체조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이룩하려고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히데마사 형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찾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말씀이 특별히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험의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6쪽)

이 말씀을 읽고 히데마사 형제는 용기를 얻고 위안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의 팀 동료들에게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이나 선교사의 부름을 이해시킬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팀 동료들이 그를 괴롭힐 때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연습을 끝마치는 날인 1989년 9월 23일이 다가왔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히데마사 형제는 말한다. 그때 저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팀 동료들에게 뭔가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코치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선수를 위한 훈련장이니 네가 있을 장소는 아나. 소지품을 챙겨서 나가!”

아픈 마음으로 히데마사 형제는 소지품을 모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습장을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특별한 간증을 받았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 “체조 선수로서의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는 다시는 선수로서 체육관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지난 십 년간 내가 성취하려고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했던 선수 생활, 고등학교 결승전, 대학결승전, 그리고 일본 대표 선발 등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나는 체육관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나를 위해 남겨진 것은 공허한 어둠뿐이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 갑자기 나를 깨끗이 씻어버리길라도 할 듯이 눈물이 마구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 히데마사 야다베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지난 십 년간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에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 그 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구세주와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며 물론경을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히데마사 형제는 대학을 떠난 뒤에도 옛 동료와 뒤에 남겨 두고 온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후 그가 자신의

힘 앞에 무력합니다. 이것이 제가 성전에서 얻은 간증입니다.”

그때부터 히데마사 형제는 결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다.

“신앙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그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진심으로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축복 중 하나는 히데마사 형제의 부모님이 지금 선교사와 토론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옛 동료들과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할 무엇인가? 학생이자 운동 선수였던 히데마사 야다베에게는 그 대가가 매우 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히데마사 야다베 장로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너무 비싼 대가란 없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큰 영광과 축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한 보상을 받을 때가 꼭 올것입니다.\*”

히데마사 야다베 장로는 도쿄 동스테이크 우시주 와드 출신이며 현재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히데마사 야다베 장로와 그의 동반자(왼쪽), 도쿄선교사 훈련원의 앤 랠프 시노 훈련원장 부부

나는 기뻐다.”

그 후 며칠 동안 히데마사 형제는 팀 동료들의 집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라고 히데마사 형제는 말한다.

그가 대학을 떠나기 전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위해 송별연을 베풀었다. “저의 동료들이 거의 다 참석하여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의 결단을

엔도우먼트를 받기 위해 동경성전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정을 강화시켜 주는 또 다른 경험을 하였다.

“해의 영광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크나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저와 가족 및 팀 동료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권세와 힘이 있으며 사탄은 이러한

# 신비롭고 달콤한 것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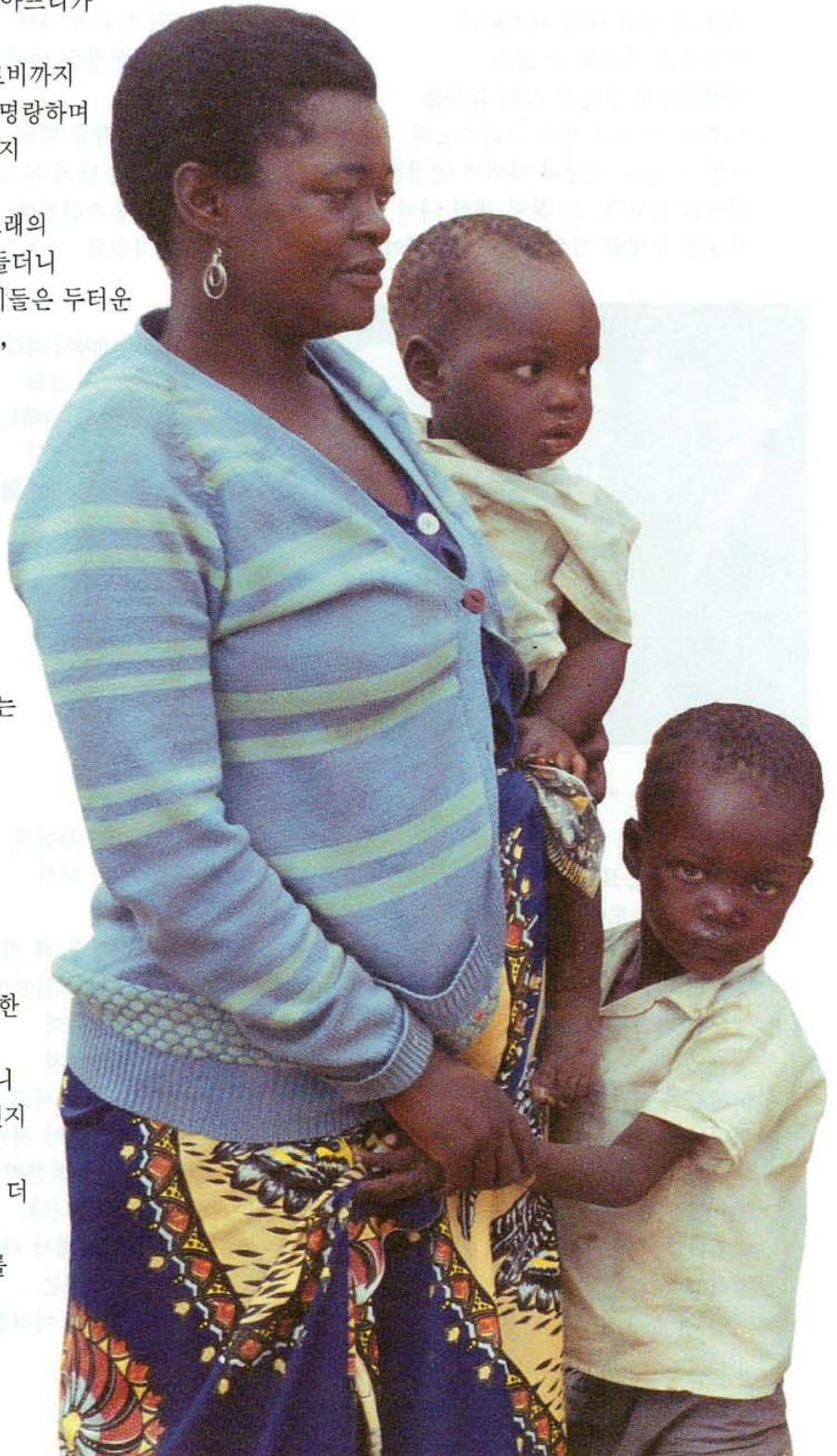
아 들 조셉이 열 두 살 때, 저와 함께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케냐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서부터는 친절하고 명랑하며 아름다운 종족인 마사이족이 사는 지역까지 자동차로 여행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조셉 또래의 아이들이 3,4십명쯤 조셉 주변으로 몰려들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두터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문화적,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그곳이 벽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전에 백인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백인 소년은 처음 본 것 같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조셉이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초코바를 한개 건네주며 “아이들에게 이것을 줘 주렴”하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포장지를 뜯고 초콜렛을 꺼내 열 네 살쯤 되어보이는 소년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이 보인 반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년은 그 초콜렛을 보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네가 먹는 것을 보여줘라.” 조셉은 자기 입에다가 초콜렛 한 조각을 넣고는 다른 한 조각은 이 열 네 살 짜리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보더니 받아 들고는 미심쩍어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주 조금 한 입 베어물더니 다음엔 조금 더 크게, 나중에는 입안에다 전부 넣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초콜렛 과자를 맛본 그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초콜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그들이 아는 아이가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 초콜렛에는 무언가

제 아들 죠셉은 그 원주민 아이들로서는 처음보는 백인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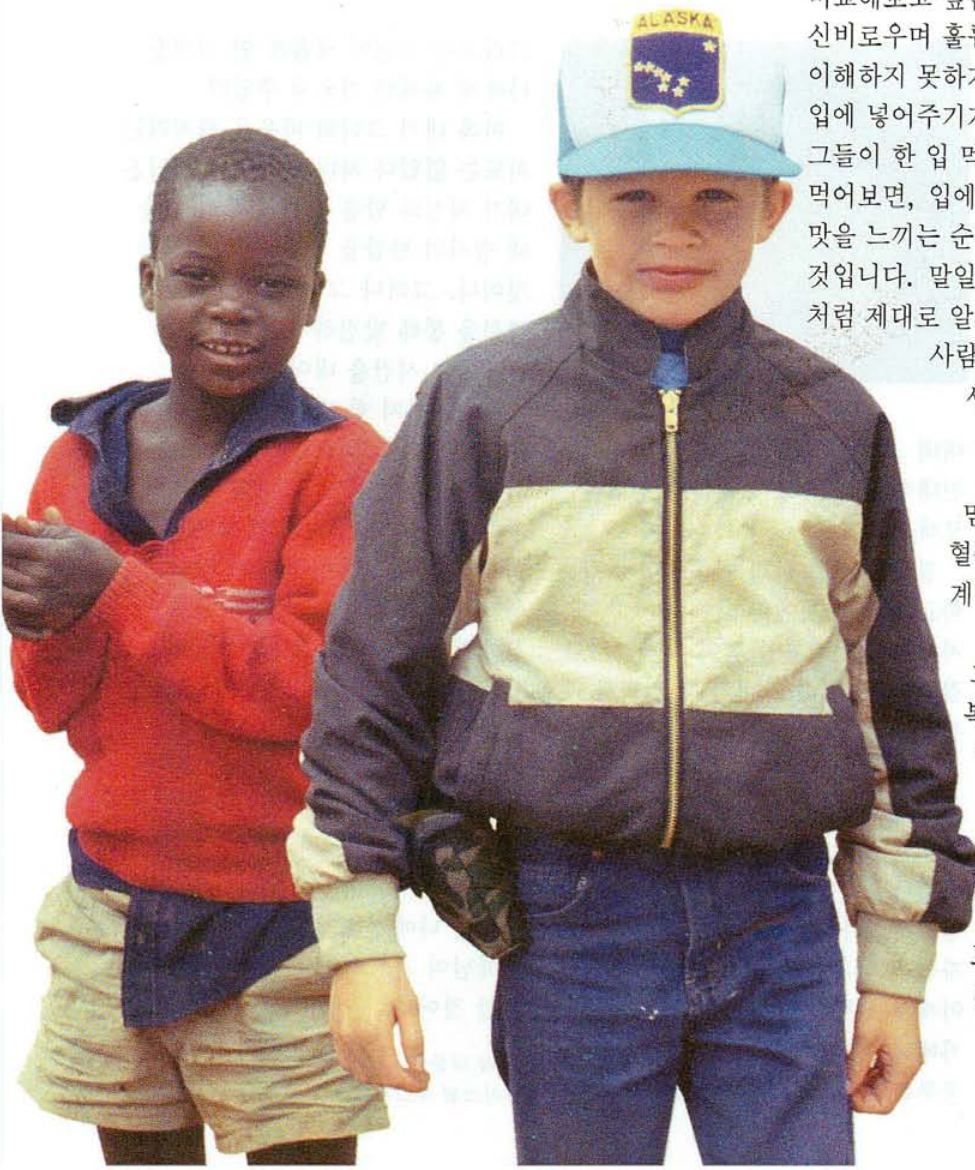
놀랄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 되어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예전의 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줄 통역자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신비롭고 달콤한 초콜렛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초콜렛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복음의 맛이 달콤하고 신비로우며 훌륭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들의 입에 넣어주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한 입 먹어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베어 먹어보면, 입에 그것을 넣고 신비로우리만큼 달콤한 맛을 느끼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모두 저의 열 두 살난 아들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중 많은 것들은 단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 의해서만 응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국민과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며 진리를 아는 것 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롭고 달콤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콜렛보다 훨씬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의 영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맛을 보았으며 그맛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맛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할 수도 없으며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



# 다른 자매가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닐라 더블류 주드

**상** 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세 가지 영광의 등급을 토론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달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즉시 손을 들고 그 자매님이 전해준 자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내가 참석했던 다른 반에서 교사가 그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는 공식적인 교회책자나 발표문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한 가공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상대편 자매의 감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너무나 무례하고 갑작스럽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그 자매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었다.

상호부조회가 끝나고 나서 나는 우연히 그 자매님 곁에서 있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둘이만 있을 때 정중히 사과하기를 원했다. 그 일이 있던 후 나는 그날



내내 그 자매에게 어떻게 말을 건내야 하나 하고 궁리하며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국 월요일 아침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로 떠난 뒤에야 나는 그 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가 막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아닌 그 자매였다. 어제 참으로 훌륭한 하루를 보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나에게 어째서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그 자매님은 그날 내내 복음원리를 공부하며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롭게 안 지식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비록 내가 그녀의 마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자매님은 내가 자신의 말을 정정해 주려 했을 때 쉽사리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그같은 경험을 통해 발전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는 시간을 내어 나를 가르치기까지 한 것이었다.

다음 성구를 읽으면서 나는 평온한 마음을 느꼈다. “만일 너희 형제 자매중 어떤 자가 너를 해칠 때에는 형제 자매와 단둘이 만나며 만일 그 형제 자매가 죄를 고백하면 서로 화해할지니라.”(교성 42 : 88),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 9)

그날 나에게 모범이 되는 그 자매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닐라 더블류 주드 자매는  
케이즈빌 제22와드 회원이다.



“목공소에서” 릴 피스 그림

우리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기가 지만 때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라”(누가복음 2:40, 51)라고 기뻐하였다. 율법과 경전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배우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으며, 예수님도 그렇게 함으로써



베들레헴



요단강



다보산



동산 무덤

**주**님은 성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  
 풍요로운 지상에서 어느 곳이라도  
**주**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푸른 풀이  
 무성하고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겠으나 주님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선택하시어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관을 쓰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지에서”,  
 10쪽 참조)